

보도시점

2026. 7. 13.(월) 11:00
7. 14.(화) 조간

배포

2026. 7. 13.(월) 09:00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26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단독 우수)’ 및 2026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도 국가안전관리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단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작년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우수’를 받으며 농업 분야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며 재난·사고 유형별 추진 대책, 재정투자계획, 역량강화 방안 등의 전년도 집행계획 실적을 3개 분야, 10개 지표로 분석·평가 후, 결과를 부처별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에서 재난유형별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발견된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계획-이행-환류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가축전염병, 저수지 사고, 도매시장 사고 등 주요재난 대응 체계, 위기대응 매뉴얼, 예산 확보·집행, 기관장의 비전·의지 등을 높게 인정받은 결과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재난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해 재해2법(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을 개정(8.16)하고, 재난대응 총괄조직인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과 농업재해지원팀을 2025년 12월 30일에 신설하여, 올해 상반기에 재난안전 관련 두 번의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받는데 기여하였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재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부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 밝히면서, 정부는 조직·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농작물·가축·시설 등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권택만 (044-201-2785)

